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3.4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9	23 30	24 31	25	26	27	28

원/달러 환율

1,479.45원 (+39.75원)

KOSPI

5,791.91 (-452.22, -7.24%)

KOSDAQ

1,137.70(-55.08, -4.62%)

국고채 10년 금리

3.594(+0.148%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통신장비	양자에 피지컬 AI까지, 텐베거가 온다 [김홍식]

Global Asset Strategy

DIN (Doo It Now)	이란발 사태, '확전'보다 '출구'를 대비할 때 [김두언]
실전 퀀트	베타보다는 씨클리컬 알파 전략 [이경수]
신흥국 전략	인도 펀더멘털은 견조, 문제는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김근아]
월간 강신호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칩과 전력 [강윤형]

기업분석

알멕	신사업 모멘텀으로 체질 개선 가속화 [한유건]
액트로	북미향 전장·로봇 모멘텀 가시화 구간 [권태우]
키움증권	사야 한다 [고연수]

산업분석 Monthly & Weekly

자동차	자동차 기업이지만 자동차로 움직이지 않아요 [송선재]
자동차/2차전지	2026년 1월 EV -4%. 유럽을 제외한 주요 지역 부진 [송선재 & 김현수]
건설	이란발 중동 사태의 영향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몽고DB(MDB.US)	1년 전 데자뷔, 가이던스 최대한 낮추고 Beat & Raise 패턴에 주목 [김재임]
프론트라인 (FRO.US)	실적발표를 통해 엿보는 탱커선 시황 전망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한국금융지주, 카카오페이, 삼양식품, 효성티앤씨, 에코프로비엠, 알지노믹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RF머트리얼즈

하나증권

2026년 3월 4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통신장비

양자에 피지컬 AI까지, 텐베거가 온다

Overweight

Top Pick 및 관심종목

*CP 2026년 2월 27일

RFHIC(218410)
BUY I TP 80,000원 I CP 56,800원

KMW(032500)
BUY I TP 35,000원 I CP 18,700원

쏠리드(050890)
BUY I TP 15,000원 I CP 8,410원

이노와이어리스(073490)
BUY I TP 60,000원(상향) I CP 34,95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I TP 30,000원 I CP 19,65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I TP 80,000원(상향) I CP 42,800원

유비쿼스(264450)
BUY I TP 22,000원 I CP 12,000원

우리넷(115440)
BUY I TP 22,000원 I CP 7,180원

ICTK(456010)
BUY I TP 28,000원 I CP 17,420원

Ericsson(ERICB SS)
NA I TP NA I CP 104.55 SEK

Lumentum(LITE US)
NA I TP NA I CP 700.91 USD

IONQ(IONQ US)
NA I TP NA I CP 38.37 USD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양자암호통신 탑재 다시 뜨거운 이슈, 통신 핵심 서비스로 부상할 것

최근 들어 양자암호통신 조기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상 중이다. 2025년에는 개인정보유출 이슈가 거셌다면 최근엔 국가보안, 전자상거래, 암호 화폐 거래 이슈가 크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내외 통신장비 업체들은 AI와 더불어 양자암호통신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송 거리 문제 해결 및 정밀도 향상으로 유선에 이어 무선에도 적용이 가능해졌는데 전송장비에 이어 5G/6G에도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향후 5G SA 시대에는 AI와 양자암호통신이 킬러 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피지컬 AI와 양자암호통신은 20년전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보안 기술 관계처럼 실과 바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양자암호통신을 채택한 피지컬 AI 사업이 전개될 것인데 5G/6G의 궁극적 목표인 IoT로의 진화, 모빌리티 혁신을 실현한다고 보면 그렇다.

피지컬 AI의 완성은 네트워크, 5G SA 시대 맞이해 장비 수요 급증 예상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리적 작동 방식 기반으로 현재의 생성형 AI를 확장해 나가는 개념인데 AI 성공을 위해 좀 더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양한 산업 환경에 특화된 형태로 활용되는데 어찌 보면 10년전 운송용 IoT 개념과 비슷하다. 그런데 피지컬 AI 등장은 통신업계의 네트워크 고도화 이슈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대규모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가운데 온디바이스의 추론 한계와 중앙 크라우드의 지연 시간 한계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엣지컴퓨팅 기반의 AI 기지국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AI 도입 이후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기기 산업이 관련 수혜주로 크게 주목받았는데 이제 통신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5G/6G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전세계 규제 기관들은 피지컬 AI 육성을 목적으로 5G SA 도입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주파수 재할당 및 신규 주파수 경매에 나서는 양상이다. 통신장비 산업의 빅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

2026~2028년 장기 상승 사이클 도래, 소섹터별 1등 업체 집중 투자 추천

미국의 800MHz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 로드맵과 미국/EU의 중국 장비/부품 규제 동향을 감안하면 2026~2028년 국내 통신장비 업종 장기 빅사이클 진입 가능성은 높다. 이에 따라 어떤 종목을 사야하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유/무선 1등 장비 업체 매수를 권한다. 현재 수준으로 보면 상승 폭의 차이일 뿐 선발에 이어 후발 사업자 역시 주가가 오른 상태라 차라리 첫번째 수주 공시가 나올 업체에 주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광통신업체와 무선 장비 업체간 선택은 짧게 보면 광통신장비 업체가 낫고 1년 이상으로 길게 보면 무선 통신장비 선택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다. 광통신은 당분간 좋은 국면이 진행될 것이며 무선통신은 2026년 하반기 이후에 개선 추세에 진입할 것임을 감안 시 그렇다.

2026년 3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이란발 사태, '확전'보다 '출구'를 대비할 때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널전략팀 김민근 연구원 minkeunkim@hanafn.com

(결론적으로) 단기 충격은 피할 수 없지만, 시장은 '출구의 가격'을 먼저 산다. 3월초 한국 시장의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아니라, 정권을 떠받치는 권력핵(혁명수비대 중심)이 어떤 생존전략을 택하느냐다. 하메네이 사망은 그 선택을 강요하는 사건이며, 게임이론적으로는 대개 강경함을 연출하면서도 체제 생존을 위한 차선(출구)을 찾는 균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 전략의 핵심은 '공포의 강도'가 아니라 '출구의 가시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출구가 보이면, 외국인 수급은 급격히 바뀔 수 있고, 한국 증시는 경험적으로 그 변곡점이 강했다. 출구가 지연되면, 충격은 길어지며, 시장은 방산/조선/전력처럼 지정학이 구조적으로 밀어주는 업종과 메모리 반도체처럼 불확실할수록 확실한 업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밀의사,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자.

이번 국면의 본질은 '중동 긴장'이 아니라 '체제 전환 리스크'다. 최고지도자의 사망은 권력 구조를 흔들고, 권력 구조의 흔들림은 대외 강경 노선을 호출하며, 대외 강경 노선은 다시 금융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끌어올린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헤드라인이 현실의 비용으로 전이되는 경로다. 그 비용 전이는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빠르게 시작된다. 호르무즈는 "가능성"만으로도 가격을 움직이는 초크 포인트(choke point)다. 미국 EIA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한 석유 흐름이 하루 평균 2,090만 배럴(20.9m b/d)로, 글로벌 석유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봉쇄가 실현될 때 유가가 '점진적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해협의 폐쇄를 선언했고, 주요 오일 메이저·트레이더·선사들이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원유·제품·LNG 선적을 중단하거나 회피하기 시작했다. 즉, 시장은 이미 "봉쇄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더 불리한 지점은 충격이 '아시아 집중형'이라는 점이다. EIA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의 84%, LNG의 83%가 아시아로 향했고, 중국·인도·일본·한국 4개국이 원유 흐름의 75%, LNG의 59%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 쇼크는 글로벌 이벤트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직격탄이다. 여기에 '가격(유가)'만이 아니라 '거래비용(운임·보험료)'까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쟁위험 보험이 재가격되면서, 1억 달러 선박 기준 항해 1회당 보험 비용이 25만 달러에서 37.5만달러로 최대 50%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가가 상품가격의 충격이라면, 보험·운임은 거래비용의 충격이며, 둘이 겹치면 수입물가의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한국 경제로의 전이여파는 '무역수지'에서 두드러진다. 미시시피 연구소는 유가가 10달러/배럴 상승할 경우 아시아의 대외수지가 악화되며, 그중 한국의 무역수지는 GDP 대비 약 -

0.6%p 감소가 예상된다. 호르무즈가 실물 차질로 이어져 유가가 계단식으로 재평가되는 국면에서는, 무역수지·환율·물가가 동시에 압력을 받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하나증권이 이번 사태를 **기회로 보는 이유는 게임이론으로 읽기 때문**이다. 게임이론은 여러 행위자가 서로의 선택을 예상하며 전략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만드는 유인의 구조를 분석하는 틀이다. 즉 게임이론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상대가 무엇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본다. 이 관점에서 이란 권력핵의 목적함수는 '보복'이 아니라 '생존'이다. 전면 확전은 내부 결속을 만들 수 있으나 체제 생존 비용을 상승시키고, 무대응은 억지력 붕괴와 내부 강경파 반발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반복게임의 현실적 균형은 대개 강경함을 과시하되 통제 가능한 범위의 제한 보복을 선택하고, 동시에 출구를 탐색하는 조합으로 수렴한다. 시장이 상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장기 봉쇄·전면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 호르무즈 또한 '실행'보다 '레버리지'로 활용될 유인이 크다. 장기 봉쇄는 이란에도 외화 수입 감소와 국제 고립, 추가 타격의 명분 제공이라는 치명적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한국 증시의 '패턴'을 설명한다. 중동발 지정학 충격은 대체로 장 초반 공포가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되고, **출구의 신호가 관측되는 순간 위험 프리미엄이 빠르게 걷히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번에는 최고지도자 사망이라는 레짐 리스크가 결합되어 초반 진폭이 더 클 수 있으나, 진폭이 크다는 사실은 곧 '가격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험상 대개 가격은 먼저 되돌려진다. 특히 외국인 수급은 불확실성 구간에서 이탈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정량화되는 순간 복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호르무즈 리스크가 선언을 넘어 실물 지표(통항량·선박 대기·보험료·운항 회피)로 얼마나 지속되는지다. 보험료의 급등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둘째, 이란의 보복이 '전면 확전'이 아니라 '제한·단계·부인가능성'이라는 관리형 양상으로 수렴하는지다. 셋째, 권력 승계가 혼란이 아닌 '통제된 재편'으로 정리되는 신호가 포착되는지다. 이 세 가지가 **안정되는 순간,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걷어내며 되돌림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업종 전략은 두 가지이다. ①질서 재편의 수혜 업종(방산·조선·전력)이다. 지정학이 상수화될수록 방산은 구조적 재평가 여지가 커지고, 해상 물류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조선은 중기 발주 사이클의 재조명이 가능하며, 에너지 안보가 정책 우선순위로 올라갈수록 전력 인프라는 설비투자 내러티브를 강화한다. ②불확실할수록 확실한 것에 프리미엄이 붙는 업종(메모리 반도체)이다.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은 결국 이익 가시성과 대체 불가능성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확실한 자산"으로 재분류될 공산**이 크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변수로 유가·달러·수급이 흔들리며 한국 시장의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게임이론적으로 보면, 이란이 지속 가능한 선택지는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며, **그 차선은 강경함을 동반하되 출구를 포함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밀의사,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자. 공포가 과도해질수록, 시장은 그 공포가 해소되는 경로를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2026년 3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실전 퀀트(Quant MP)

베타보다는 씨클리컬 알파 전략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최소한 외인의 강한 매도는 시장 추세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 지수 수익률은 여전히 +37.4%을 유지하고 있다. 지수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만큼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국면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 지수대에서 단순 지수 변화폭에 대한 평가보다는 실제 수급 주체의 포지셔닝 변화, 특히 외국인 수급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접근이 보다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수급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며 25조원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 최근 들어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외인 매도가 지수 하락을 예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2010년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인 주간 순매수 비중을 단계별로 구분해 이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외인 수급이 향후 주가의 선행지표로 작동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현재 시총대비 외인 순매수 -0.25% 수준). 오히려 시가총액 대비 순매도 강도가 높았던 구간에서 이후 반등폭이 더 크게 나타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외국인 자금은 원/달러 환율로 대변되는 글로벌 위험선호 변화에 연동된 자산배분 성격이 강해, 알파 스킴보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따른 패시브 성격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국면('20년 3월 중)에서 시총 대비 -0.4% 이하 순매도(현재 기준으로는 주간 -20조원) 이후 시장은 단기적(이후 1주)으로 부진했으나 1개월 이후 수익률은 플러스로 전환된 바 있다.

베타 급반등보다는 알파 베팅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현재 국면에서는 다수가 느끼는 베타(시장 방향성)에 대한 우려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적 기반의 알파 구간 진입 가능성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첫째, 시장의 빠른 상승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누적되면서 지수 탄력은 둔화되는 반면, 실적 가시성 및 퀄리티가 높은 종목 중심의 차별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험적으로 전월 지수 상승은 해당 스타일의 성과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둘째, 3~4월 실적 시즌을 앞둔 계절적 특성상 이익 추정치 리비전이 본격화되는 구간으

로, 역사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실적 상향 및 실적 상향이 반영되면서 동반되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유가 및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투가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해 당분간 유가 상승 → 전기 비용 상승 → 운임 상승 → 산업금속 등 원자재 상승 → 금리 상승 등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국면의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형이라기보다는 공급 충격 성격으로 씨클리컬 전반보다는 에너지 및 일부 원자재 연동 업종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유가 급등의 파급 효과 측면에서 브렌트유와 글로벌 산업금속지수의 중장기 상관성이 높았다. 또한, 국내 업종별 브렌트유와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는 정유 > 상사 > 기계 > 조선 > 건설 > 전기장비 > 철강 > 화학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5월 MSCI 관련 이벤트 기대감은 현재 외국인 매도의 공포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핵심 알파 수단이다. 통상 3월부터 5월 편입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 1 티어는 **LS 및 한화**, 2 티어로는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이다(위의 언급된 씨클리컬 업종이 아니기에 2 티어).

2026년 3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인도 펀더멘털은 견조, 문제는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인도 GDP 기준연도 2011-12년에서 2022-23년으로 변경

2월 27일 인도 FY2026년 3/4분기(2025년 10~12월) GDP 성장률이 발표됐다. 인도 정부는 이번 발표부터 GDP 기준연도를 기존 2011-12년에서 2022-23년으로 변경한 새로운 시계열을 적용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산업 구조와 소비·고용 환경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가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2022-23년을 기준연도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GST(상품 및 서비스세)와 e-Vahan(차량 등록) 데이터를 비롯해 ASUSE(비법인 사업체 연례조사) 및 PLFS(정기 노동력 조사) 등 비공식 부문의 생산 활동과 고용 구조를 반영함으로써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FY2026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YoY +7.8%로 견조했음

FY2026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YoY +7.8%를 기록했다. 전분기(+8.4%) 대비로는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한, FY2026년 연간 실질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7.4%에서 7.6%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견조했음을 보여줬다. 이번 분기 성장의 핵심 동력은 민간소비였다. 민간소비는 YoY +8.7%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는데, 이는 10월부터 본격화된 축제 시즌 수요와 사전에 단행된 GST 인하 효과가 맞물리며 소비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지출 증가율은 +4.7%에 그쳐, 이번 성장세가 재정 확대에 따른 단기 부양이라기보다 민간 수요 회복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내수소비 회복세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 제조업은 YoY +13.3% 성장하며 가장 두드러진 확장세를 나타냈고, 서비스업 역시 +9.5%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농업(+1.4%)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이는 2025년 카리프 작물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몬순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수확기를 앞둔 9월 강수량이 평년을 상회함에 따라 일부 작물의 수확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하면 이번 3/4분기 GDP는 농업 생산 부진이라는 과제를 남겼지만, 내수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 경제의 내수 기반 성장 구조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GST 개편 이후 정책 효과를 처음으로 가늠할 수 있었던 분기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당분간 대외 변수를 더 크게 반영할 전망

한편, 3월 2일 인도 증시는 견조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1.2% 하락 마감했는데, 이는 이란·이스라엘 충돌 격화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순수입국인 인도의 물가와 환율 부담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도는 수입 원유의 4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봉쇄로 인한 충격에 취약하다. 러시아산 원유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환경을 감안하면 러시아산 수입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데에도 현실적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분쟁 장기화는 유가 상방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으며, 이는 인도 경제에 물가 상승 압력과 통화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인도 증시는 유가 및 지정학 리스크 등 대외 변수에 보다 민감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6년 3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월간 강신호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칩과 전력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강윤형 kangyh@hanafn.com

2월 신고가 Review: 여전히 주도주에 AI가 흐른다

AI 비서 오픈클로가 시장을 휩쓸었다. ERP, 금융, 사이버보안 등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인튜이트, 워크데이, 팔로알토 등 소프트웨어주가 부진했다. 그와 동시에 AI 활성화로 전력 수요 확대와 미·이란 갈등으로 증시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이 신고가 수익률 +4.92%, +3.86%로 강세를 보였다. 에너지는 천연가스의 수출 확대 및 전력용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이란 이슈로 유가가 연일 상승하며 업종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유틸리티 업종은 주요 기업들이 AI발 전력 수요 확대를 예견하면서 장기 자본 지출을 확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방어주로 순환매 움직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월 신고가 Preview: GTC 2026 중심의 IT와 산업재

3월 투자 전략으로 IT와 산업재 업종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 IT 업종은 실적 기대감과 3월 주요 이벤트인 엔비디아 GTC 2026 기대감이 유효하다. 하드웨어 중심의 실적 전망치 상향에 IT 업종 12mf EPS가 연초 대비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주요 빅테크의 FY2026 AI CapEx가 6,500억 달러로 추정되면서 샌디스크, 엔비디아, 웨스턴 디지털/씨게이트 등 직접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하드웨어 부문 중심으로 실적 상향이 지속됐다.

3월 16~19일 엔비디아 GTC 2026에서 베라루빈 중심의 발표가 예상된다. 과거와 다르게 소비자 제품 중심의 CES에서부터 베라루빈을 공개한 만큼 베라루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베라루빈은 메모리 용량 증가 및 SSD 신규 수요로 디램, 낸드의 수요 확대 전망되어 반도체, CPO 기술 적용으로 광통신 등 수혜가 예상된다.

이전 세대 대비 높아진 전력 소모량으로 전력 발전의 중요도가 재부각되면서 산업재 업종의 수혜가 전망된다. GPU 기준 전력 소모량이 초기 모델 암페어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면서 AI의 전력 소모량이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증설이 제한적이 기존 발전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온사이트 발전이 부각받았다. 연료전기부터 항공엔진까지 다양한 온사이트 발전이 AI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됐다.

2026년 03월 0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알멕 (354320)

신사업 모멘텀으로 체질 개선 가속화

Not Rated

현재주가(3.3) **5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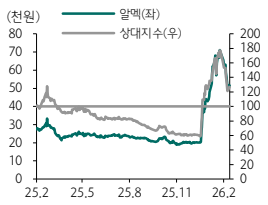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37.70
52주 최고/최저(원)	71,100/19,000
시가총액(억원)	3,291.6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6,391.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33.4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100.4
외국인지분율(%)	6.26
주요주주 지분율(%)	
다이엑스	27.38
아리아	24.72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억원)	1,878	2,367
영업이익(억원)	70	173
순이익(억원)	48	140
EPS(원)	540	1,878
BPS(원)	22,890	25,19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828	1,568	2,160	1,569
영업이익	(68)	113	159	(27)
세전이익	(158)	75	(60)	(59)
순이익	(135)	55	(68)	(24)
EPS	(2,819)	1,143	(1,147)	102
증감율	적전	흑전	적전	흑전
PER	0.0	0.0	(40.4)	251.5
PBR	0.0	0.0	2.2	1.2
EV/EBITDA	0.0	0.0	4.7	21.1
ROE	(34.5)	7.1	(5.1)	0.5
BPS	8,169	14,317	20,780	22,042
DPS	0	0	0	0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손호성 hss93@hanafn.com

국내 대표 첨단산업용 알루미늄 소재 전문기업

알멕은 알루미늄 압출,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및 산업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소재 전문 제조기업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알루미늄 Crash Alloy 소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주조부터 조립, 표면처리까지 일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1)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2) 배터리 팩 프레임, 3) 알루미늄 빌렛, 4) 방열 경량화 부품이며, 전기차 부품 매출 증가로 인해 2025년 실적은 온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동사는 글로벌 Top-Tier EV,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을 핵심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전방산업의 경량화, 고강도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우주항공 및 전력용으로 포트폴리오와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사업 분야 진출

알루미늄은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물 추출 및 다른 금속과의 합금을 통해 최적의 소재를 제조하기 위한 Alloying 기술이 필요하다. 금속의 조직을 재배열하여 원하는 물성을 얻는 과정은 요리의 레시피와 같이 쉬운 작업 과정이 아니다. 알멕은 5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소재 핸들링에 특화되어 있으며, 원소재 빌렛 주조부터 압출, 가공, 표면 처리까지 전 공정 수직계열화를 통해 Full 밸류체인을 확보. 약 4,500억원의 CAPA를 확보함과 동시에 원가 경쟁력, 제품 품질 등에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이를 바탕으로 1) 우주항공, 2) 고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글로벌 Top-Tire 업체와 협력사 등록을 완료했고, 현재 샘플 물량이 출하된 것으로 파악된다. 1~2분기 중에 최종 퀄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핵심 고객사의 발사 계획이 추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소재 공급 물량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공급망 이슈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체 소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알멕은 구리 대비 3~4배 저렴한 알루미늄을 바탕으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전도 소재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ESS,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적용 산업 범위가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혜가 예상된다.

제품 Mix 개선 및 원가 절감, 수익성 회복 국면 진입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로 인해 알멕은 2025년 매출액 1,878억원(YoY+19.7%), 영업이익 62.4억원(YoY 흑자전환, OPM 3.3%)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동사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2,200억원(YoY+17.1%), 영업이익 135억원(YoY+116.3%, OPM 6.1%)을 기록할 전망이다. 외형과 수익성 개선의 가장 큰 요인으로 1) 기존 저가 수주 물량 해소, 2)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제품 Mix 개선, 3) 알루미늄 스크랩 리사이클링을 통한 원가 하락, 4) 우주항공 및 전도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신규 매출 증가로 판단된다.

2026년 03월 0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액트로 (290740)

북미향 전장·로봇 모멘텀 가시화 구간

Not Rated

현재주가(3.3)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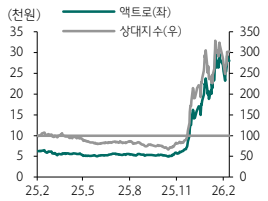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37.70
52주 최고/최저(원)	30,750/4,965
시가총액(십억원)	281.8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10,065.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56.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0
외국인지분율(%)	5.61
주요주주 지분율(%)	
하동길 외 6 인	38.1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92	133	157	203
영업이익	(2)	(6)	5	2
세전이익	3	(11)	6	4
순이익	3	(9)	6	1
EPS	285	(927)	571	148
증감율	39.0	적전	흑전	(74.1)
PER	30.9	(6.5)	14.1	34.2
PBR	1.1	0.9	1.1	0.7
EV/EBITDA	17.5	16.6	3.9	2.7
ROE	3.9	(14.7)	8.4	2.1
BPS	7,930	7,015	7,476	7,556
DPS	100	100	100	10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카메라 모듈 핵심부품과 검사·자동화 장비를 영위하는 기업

액트로는 카메라 모듈 핵심부품인 AF·OIS·폴디드줌 액추에이터를 개발·양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 구동계 부품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성능검사장비·자동화 설비·테라헤르츠 기반 정밀검사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부품과 장비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베트남 생산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세트업체에 공급 중이며, 2025년 잠정실적은 매출액 2,449억원(+20.6% YoY), 영업이익 66억원(+172.2% YoY, OPM 2.7%)을 기록했다. 액추에이터 매출 증가와 자동화·검사장비 매출 확대가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실적 체질을 바꾸는 세 가지 축

① 액추에이터의 안정적 기반 확보: 스마트폰 카메라 고사양화 흐름 속에서 폴디드줌·고성능 OIS 채택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동사는 국내 S향 약 60%, 글로벌 업체향 약 25%, 중화권 고객사를 포함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출하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액추에이터 OPM은 1~3% 수준이나, 전공정 자동화 내재화를 통해 수율 개선과 원가 절감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 부품사와 차별화되는 경쟁 요소다. 2026년에도 액추에이터 매출 2,200억원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북미향 6축 검사기·테라헤르츠, 고마진 장비 사업 본격화: 북미 세트업체향 6축 OIS 성능검사기 공급이 추진 중이며, 공간 효율성과 정밀도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테라헤르츠 기반 검사 시스템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향 초도 물량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양극재 상·하 전극 동시 검사 기능이 강점이다. 검사장비 OPM은 20% 이상, 테라헤르츠는 30% 이상으로 부품 대비 수익성이 높다. 장비 매출은 2025년 약 200억원에서, 2026년 신규 매출 반영되면서 350억원 수준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③ 전장 카메라 히터·로봇용 액추에이터, 신규 시장 진입: 북미 완성차 업체향 전장 카메라 히터 어셈블리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환경에서 카메라의 기상 대응 기능은 필수 요소이며, 차량 1대당 복수 카메라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택 범위는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기차·로보택시 확산과 맞물려 중장기 출하량 증가가 기대된다. 로봇용 카메라 액추에이터는 2분기 이후 초도 양산이 개시될 전망이다. 해당 제품의 단가는 스마트폰 대비 10배 이상 높은 가격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 기준 잠재 매출은 연간 700~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수익성 역시 모바일 대비 뚜렷한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양산 본격화 시 실적 체질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체질 변화와 평가 프레임의 전환

액트로가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는 2026년 매출액 2,600억원, OPM 5% 수준이며, 2027년에는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가되면서 매출액 3,000억원, OPM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 믹스 개선과 고부가 장비·전장·로봇 비중 확대에 기반한 수익성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수치다. 이에 따라 동사는 기존 부품주 프레임을 벗어나 성장주로 재평가되는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러한 구조 변화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03월 0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키움증권 (039490)

사야 한다

BUY

목표주가(12M) 570,000원(유지)
현재주가(03월03일) 42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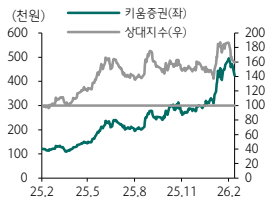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pt)	5,791.91
52주최고/최저(원)	495,500/109,200
시가총액(십억원)	11,509.1
시가총액비중(%)	0.24
발행주식수(천주)	26,211.7
60일 평균거래량(천주)	137.4
60일 평균거래대금(십억원)	52
외국인 지분율(%)	29.30
주요주주 지분율(%)	
다우기술 외 4인	41.10
국민연금공단	11.6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3,405	13,842
영업이익(십억원)	1,821	1,796
순이익(십억원)	1,348	1,350
EPS(원)	51,644	51,317
BPS(원)	298,978	339,73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순영업수익	1,845.9	2,396.2	2,856.2	3,116.3
영업이익	1,098.2	1,488.2	1,918.0	2,118.4
세전이익	1,092.3	1,540.7	1,974.0	2,152.6
지배순이익	835.0	1,113.6	1,357.4	1,480.1
PER	3.70	6.86	8.25	7.57
PBR	0.49	1.12	1.43	1.25
ROA	1.5	1.4	1.6	1.7
ROE	14.94	16.61	17.49	16.64
DPS	7,500	11,500	13,100	14,500
배당수익률	6.5	4.0	3.1	3.4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유동성 장세 펼쳐지는 중, 개인 매수세 유입은 초입에 불과

개인의 국내 및 해외주식 매수세가 지속되며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에도 불구하고, RIA 도입 지연 영향 등으로 해외주식 순매수는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내주식 역시 개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2월 누적 기준 개인은 ETF를 약 25조원 매수했으며(vs. '25년 연간 17조원),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6.5조원 기록했다. ETF 매수뿐 아니라 KOSPI 기준 2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다.** 2020~2021년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거래비중은 월간 기준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KOSPI와 KOSDAQ 상승을 동시에 견인했다. 현재 거래대금과 순매수 규모 감안 시, 개인 매수세는 아직 초입에 불과하다.

키움증권 국내주식 M/S 반등 가능성 매우 높음

KOSPI 6,000 돌파에 이어 정부의 KOSDAQ 3,000 추진 정책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로의 개인 자금 유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키움증권의 M/S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25년 1월 20.3% → '26년 2월 17.4%), 이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전개된 영향이다. 코로나19 당시를 돌이켜보면, KOSDAQ 지수는 2020년 1월 640에서 2021년 6월 1,030까지 약 60% 상승했으며, 동기간 코스닥 거래비중은 평균 45% 기록했다. 개인 매수세 확대 → 코스닥 거래 활성화 → 키움증권 M/S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2021년 브로커리지 순수수료수익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6,540억원 기록했다(순영업수익 대비 46%). 반면 2025년은 기관·외국인 중심의 KOSPI 대형주 장세였다. 이에 따라 코스닥 거래비중은 2025년 1월 42.0%에서 2026년 2월 27.5%까지 하락했으며, 개인의 본격적인 순매수 전환도 2026년 1월부터 나타났다. **즉, KOSDAQ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본격화될 경우, 키움증권 M/S 반등 가능성은 높다.** 보수적으로 M/S 하락세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브로커리지 순수수료수익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조원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조정 시마다 매수 유효, 증권업종 Top Pick 유지

키움증권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70,000원 유지한다. 1)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수수료수익 성장이 실적 하방을 지지할 전망이며, 2) 3월 중 2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 3) 하반기 퇴직연금 사업을 통해 ETF LP 비즈니스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누적 기준 ETF 거래대금 M/S는 12.2% 수준이나(vs. 한투 17.1%), ETF LP M/S는 약 25%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시 시장 유동성 확대와 함께 LP 수익 개선도 기대 가능하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PBR 1.4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다. 조정 시마다 매수 유효하다.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6년 2월)

자동차 기업이지만 자동차로 움직이지 않아요 | 2026.3.4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s

Key Insight: 주가 상승 모멘텀은 SDV/자율주행 및 로봇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2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30.7만대/24.7만대로 -5%/-3% (YoY)
- 합산 글로벌 도매판매는 55.4만대(-4.0% (YoY)).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14%/-2% (YoY)
- 합산 도매판매는 지난달 0% 하락에서 4.0%로 하락폭 확대

달성률
- 현대차/기아의 2026년 도매판매 목표는 1%/7% 증가한 415.8만대/335.0만대
- 2월 누적으로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률은 각각 14.8%/14.7%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률 15.1%/15.5% 대비 하회한 수준. 6년 평균 달성률 15.3%/15.5% 대비로도 모두 하회한 수준
- 2026년 목표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2월까지의 누적 판매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가
- 산업수요의 저성장과 경쟁심화 등으로 2026년 2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판매는 3%/0% 감소하며 전년 동기 및 판매목표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 중
- 물량 저성장 기조로 자동차 부문의 실적에는 미국/HEV에서 기인한 믹스 효과와 환율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
- 현재 완성차 주가를 기준 P/E 10배 수준으로 글로벌 Peers 및 Historical 대비 상회. 즉, 자동차 제조만의 Valuation은 적정 수준
- 주주환원수익률 역시 배당금 축소 및 소폭 상향과 주가 급등 후 낮아진 상태라 Valuation 상향의 동인으로서는 영향력이 약화
- 결국 주가 상승은 SDV/자율주행차와 로봇 등을 신성장 동력을 통한 Valuation 확장에서 기인할 수 있을 것. 이 부분은 사업화 가시성 및 속도가 중요
- 현대차그룹은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보스턴다이내믹스(BD)의 대주주로서 BD 로봇이 공장 배치, 제품 개선, 초기 상용화, 고객 확대 등을 거치며 기업가치 상승의 결실을 공유. 2027년 이후 예상되는 BD의 IPO는 이를 확인하는 이벤트일 것
- SDV/자율주행은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Pace Car의 제품화 수준 및 빅테크들과의 제휴 내용이 중요. 이 부분은 추가 Valuation 확대의 촉매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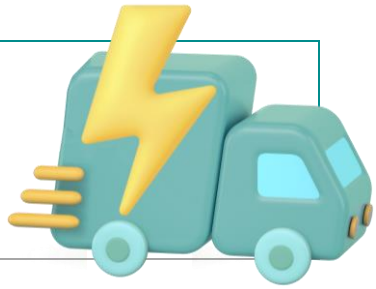
현대차: 2월 도매판매 -5.1% (YoY). 내수/해외 -6%/-2%

도매판매
- 2월 글로벌 도매판매 30.7만대(-5.1% (YoY))
- 내수 4.7만대(-18% (YoY))/해외 26.0만대(-2% (YoY)). 해외판매 비중 84.7%(+2.4%p)
- 내수에서 승용 1.4만대(-19%), RV 1.9만대(-5%), 소상 0.7만대(-21%), 대형 0.1만대(-48%), 제네시스 0.7만대(-32%, 비중 14.8%)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42%/-3%/+354%/-28%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9%/+29% (YoY). 투싼/싼타페/팰리세이드 -37%/-47%/-20%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44%/-20%/-36% (YoY)
- 내수 친환경차: 2.1만대(+13%). 친환경차 비중 44.4(+5.0%p). EV/HEV 각각 1.0만대/1.0만대(+86%/-19%)
- 내수 전기차: 신형 아이오닉9/아이오닉6 1,751대/1,571대 기여, 아이오닉5 3,227대

기아: 2월 도매판매 -2.8% (YoY). 내수/해외 -9%/-2%

도매판매
- 2월 글로벌 도매판매 24.7만대(-2.8% (YoY))
- 내수 4.2만대(-9% (YoY))/ 해외 20.5만대(-2% (YoY)). 해외판매 비중 83.0%(+1.1%p)
- 내수에서 승용 1.0만대(-3%), RV 2.5만대(-22%), 상용 0.7만대(+96%)
- 내수 승용: 모닝/레이 +49%/-24%. K5/K8 -13%/-44%
- 내수 RV: 니로 +61%.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70%/-42%/-15%/-52%. 신형 타스만 328대 기여
- 내수 친환경차: 2.8만대(+33%). 친환경차 비중 66.0%(+20.6%p). EV/HEV 각각 1.5만대/1.3만대(+211%/-18%)
- 내수 전기차: 신형 EV4 1,874대 기여, EV3 3,469대, EV6/EV9 -9%/+28%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2026년 1월 EV -4%. 유럽을 제외한 주요 지역 부진 | 2026.03.04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전기차: 1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4% (YoY).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은 중국 38.6%, 유럽 31.9%, 미국 7.0%

글로벌
- 1월 116.6만대(-4% (YoY)). BEV/PHEV 76.3만대/40.3만대(-1%/-9%)

미국
- 1월 7.7만대(-31% (YoY), 비중 7.0%). BEV/PHEV 6.5만대/1.2만대(-26%/-48%)
- 1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모델3로 각각 2.40만대/1.12만대

중국
- 1월 59.7만대(-20% (YoY), 비중 38.6%). BEV/PHEV 34.8만대/24.9만대(-18%/-22%)
- 1월 판매대수 1위/2위는 샤오미의 YU7/Geely의 Star Wish로 각각 3.79만대/2.90만대

유럽
- 1월 30.7만대(+20% (YoY), 비중 31.9%). BEV/PHEV 20.3만대/10.4만대(+15%/+31%)
- 1월 판매대수 1위/2위는 스코다의 ENYAQ/폭스바겐의 ID.4로 각각 0.67만대/0.65만대

한국
- 현재 시점 미발표로 추후 발표 시점 집계할 예정

하이브리드차: 1월 글로벌 HEV 증가율은 +8% (YoY). 지역별 HEV 침투율은 유럽 34.9%, 일본 52.6%, 미국 14.3%

글로벌
- 1월 87.9만대(+8% (YoY)), 유럽 33.5만대(+8%), 일본 16.2만대(-10%), 미국 15.8만대(+13%), 한국 4.1만대(+48%)

현대차/기아: 1월 HMG의 친환경차/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34%/+11% (YoY), 전기차 비중은 7.2%,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3.3%

친환경차
- 1월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13.29만대(+34% (YoY), 비중 25.0%). 현대차/기아 각각 6.94만대(+30%)/6.35만대(+39%)
- 이 중 HEV 소매판매는 9.46만대(+46%, 비중 17.8%), 현대차/기아 5.22만대(+42%)/4.24만대(+52%)

전기차
- 1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소매판매는 3.84만대(+11% (YoY), 비중 7.2%). BEV/PHEV 3.16만대/0.67만대(+20%/-18% (YoY), 비중 6.0%/1.3%). 현대차/기아 각각 1.7만대(+3%)/2.1만대(+19%)
- 1월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은 현대차/기아 합산 3.3%(+1.6%p (MoM), +0.5%p (YoY)). 현대차/기아 각각 1.5%/1.8%(+0.6%p/+1.0%p (MoM), +0.1%p/+0.4%p (YoY))
- 전기차 전용 모델들의 출하 동향: (현대차) 아이오닉5 출하 3,657대(내수/수출 239대/3,418대), 소매판매 1,367대(내수/유럽/미국 239대/1,088대/40대). 아이오닉6 출하 710대, 소매판매 3,474대. 아이오닉9 출하 710대. 제네시스 GV60 출하 440대(내수/수출 10대/430대). 넥쏘 출하 12대. (기아) EV6 출하 862대(내수/수출 214대/648대), 소매판매 1,795대(내수/유럽/미국 214대/894대/540대). EV5 출하 137대, 소매 3,170대. EV9 출하 1,389대(내수/수출 40대/1,349대), 소매판매 1,740대(내수/유럽/미국 40대/815대/674대). EV3 출하 4,328대. EV4 출하 843대

2차전지: 글로벌 1월 배터리 출하 +11%(YoY), CATL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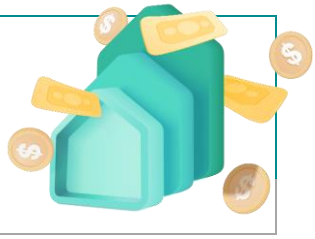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출하량
- 1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11%(YoY) 증가한 71.9GWh를 기록. 업체별 출하량은 CATL 32.5GWh(+26%), BYD 9.9GWh(-2%), LGES 4.7GWh(-15%), CALB 3.8GWh(+52%), Panasonic 3.1GWh(+22%), SK on 2.3GWh(-21%), 삼성SDI 1.6GWh(-24%)
- 1월 LFP 배터리 침투율은 글로벌 50.5%로 전월 대비 -5.6%p 하락

원재료 동향
- 주 원재료 가격 동향: 리튬/니켈/코발트/망간/구리/알루미늄/LiPF6 가격은 1월 +16%/+20%/+7%/+2%/+11%/+10%/-14%(MoM), 2월 +9%/-4%/+1%/+1%/-1%/-3%/-16%(MoM)

시사점 및 의견: 국내 셀 메이커 3사 유럽 합산 점유율 30%대 지속 유지

2차전지
- 2026년 1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는 16.6GWh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반면, 국내 3사(LGES, 삼성SDI, SK on)의 유럽 출하량은 각각 2.7GWh(YoY +2%), 1.5GWh(YoY +5%), 0.9GWh(YoY -10%) 기록. 3사 모두 시장 성장률을 하회하며 점유율 하락세 지속. 긍정적 요인은 2025년 이후 3사 합산 점유율이 3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유럽 내 비중국산 배터리 조달 비중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려는 니즈 확인. 최소한의 에너지 안보 논리가 유럽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판단. 만약 30%대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2026년부터 전기차 시장 성장률에 연동된 낙수효과 기대 가능. 미국 시장의 경우 1월 출하는 6.3GWh로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하며, 매우 부진하지만 현재 실적 추정치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 현 가격에서는 국내 셀 메이커 매수 가능 가격대라고 판단

이란발 중동 사태의 영향



건설 Weekly | 2026.3.4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6.7%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은 삼성물산과 삼성E&A를 매수했으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매도했다. 외인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매수했으며, 삼성물산과 삼성E&A를 매도했다. 원전 관련 종목(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 크게 상승했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6.7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6주 연속 상승(+0.05%), 전세가는 37주 연속 상승했다(+0.07%). 수도권 매매가는 52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는 53주 연속 상승(+0.09%) 했다. 서울 매매가는 57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는 54주 연속 상승(+0.09%)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매매가는 모두 17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30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26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0.05%). 광역시별 매매가는 인천(+0.02%), 부산(+0.03%), 울산(+0.09%)이 상승, 대전(-0.01%), 광주(-0.01%) 하락, 대구(0.00%)는 보합을 기록했다.
- 연휴 전후로 이란의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패쇄가 있었다. 이에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71.2달러에서 80.8달러(+13.4%) 상승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해외에서 건설 진행중인 현장에서의 우려가 주가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 실제 기자재 수급, 안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계약 상에서 추가 비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Force Majeure). 단기간 매출 시현에서의 속도 조절이 있을지라도, 비용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중동 등에서 기대하던 수주 이벤트들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동에서 공사 진행 중인 건설사는 현대건설(사우디, 이라크), 삼성물산(카타르, UAE, 사우디), 삼성E&A(카타르, 사우디, UAE), 대우건설(이라크) 등이 있다.
- 유가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국내 건설사에 부정적일 수 있다. 운송비 및 자재비 상승이 공사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1~2022년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기에 건설사의 마진 스프레드는 축소됐었다. 또한 금리 상승 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로 발주 혹은 착공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대형원전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 사업비 내 금융 비용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금리 상승 시 발주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공사기간이 짧은 SMR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 만약 분쟁이 종료되고, 이란의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중장기적으로 발주 환경 턴어라운드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 특히 이란은 유전과 가스전이 풍부하기에 개발의 여지가 크다. 과거 이란 핵협상 시기인 2016년에 DL이앤씨가 이란에서 정유 프로젝트(이스파한)를 수주한 바 있다.
- 단기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질 수 있으며,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국내 주택주가 방어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 주간 추천종목으로 아이에스동서, GS건설을 제시한다.

몽고DB(MDB.US)

기업 이슈 코멘트

2026. 3. 3 | 해외 기업 분석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1년 전 데자뷔, 가이던스 최대한 낮추고 Beat & Raise 패턴에 주목

아틀라스 & EA 사업 전망 긍정적, FY27년 매출 가이던스 시장 전망치 하회했으나 전략적으로 보수적 산정

- FY26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MDB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4% 하락. 1) 매크로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투자자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2) FY27년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점이 투자 불안감을 촉발한 것으로 보임
- 4분기 아틀라스(클라우드 DBaaS 플랫폼) 매출 성장은 29%를 기록, 가이던스를 2ppt 상회. 예상 대비 상회폭이 전분기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4분기에 아클라스와 EA (온프레미스)를 번들로 묶은 초대형 계약에서 EA 매출 배분이 예상보다 높게 할당된 점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아틀라스 성장은 30%
-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산업과 공공 부문에서 EA (온프레미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하여, EA를 포함한 'Non-Atlas' 매출은 20% 성장, 최근 2년내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 기록. 계약 기간 변동 영향을 제외할 경우 13% 성장
- FY27년 매출액 가이던스가 28.8억 달러(+17%)로 컨센(29억)을 소폭 하회, 시장 우려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1) 아틀라스 사용량 성장세 여전히 견고함에도 사용량 기반 매출 인식 모델 특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제시, 2) 금융, 헬스케어, 정부 등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산업군에서 EA 수요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계약기간(1년 혹은 다년) 예측이 어렵고, 가이던스에 반영된 다년 계약이 무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한 불확실성 요인 제외, 3) 영업본부 경영진 교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여유분 고려하여 기존대비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년전 FY26년 첫 연간 가이던스도 매출의 경우 시장 예상보다 낮은 13% 성장을 전망하며, 주가는 30% 가깝게 하락했으나 이후 분기 실적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 확인되며 주가 크게 반등. FY26년 매출액은 23% 성장 기록
- 1) 매크로 영향에 따른 변동성 높은 특성, 2)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 대한 약한 투자 심리, 3) 시장 기대치 대비 낮은 가이던스로 경쟁심화 우려 부각 등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1) AI 도입 추세 속에서 비관계형 DB 시장 확대의 대표 수혜주라는 기존 전망 유효, 2) 전년도와 유사하게 첫 연간 가이던스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시 하고, 매 분기 실적을 통해 Beat & Raise 지속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 주가 변동성 높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AI 수혜주 입증할 것으로 전망

주요 실적 지표 & 가이던스

FY26년 4분기 주요 지표

- 4분기 매출 6.95억 달러(+27% YoY), 컨센 3.7% 상회, 조정 OPM은 23%로 컨센 1%p 상회, 조정 EPS는 1.65 달러로 컨센 11% 상회
- 아틀라스 매출 성장 29%로 가이던스(27%)를 상회하며 가속화, 매출 비중 72% 차지
-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EA(Non-Atlas) 사업은 금융/공공/테크 중심으로 대형 거래를 체결하며 모멘텀 확인. 번들 거래 증가로 Atlas & EA 동시 확장 사례 증가 긍정적. RPO 14.7억 달러(+97% YoY)로 전년 동기 7.5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
- 고객 지표도 개선. ARR 10만 달러 상회 고객 2,799개(+17% YoY), 100만 달러 이상 고객 402개(+26% YoY). 전체 고객 수 65,200으로 분기 순증 2,700 기록하며 전 분기 1,900 대비 가속화
- NRR 121%로 전분기 120% 대비 상승. FCF 1.77억 달러로 전분기 1.4억 달러 대비 증가세 지속

FY27년 1분기 & 연간 가이던스 제시

- FY27년 1분기 가이던스 매출 6.59~6.64억 달러(+20~21% YoY), 조정 EPS 1.15~1.19달러로 시장 예상치 6.625억, 1.21 달러를 소폭 하회
- FY27년 연간 가이던스 매출 28.6~29.0억 달러(+16~18% YoY), 조정 EPS 5.75~5.93달러로 매출은 시장 예상치 29억 달러를 하회했으나, EPS는 상회
- Atlas 성장률 전망은 1분기 약 26%, FY27 연간 21~23% 성장 예상. 소비(Consumption) 모델 특성상 하반기 가시성은 제한적이라 보수적으로 제시
- AI 기능 강화, Voyage 통합, EA의 Atlas 대비 기능 격차 축소, 일본/미 연방 사업 강화 등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조정 영업이익률은 FY27에 100bp 확대 목표 재확인

FY27 및 장기 전망 코멘트

- Investor Day에서 제시한 장기 모델(Atlas 20%+ 성장, Rule of 40) 유지 재확인. 수익성 개선은 주로 매출 성장 기반
- EA는 규제 산업 중심으로 온프레미스 중요도가 재부각되고 있으며, Atlas 대비 기능 격차 해소 투자로 중장기 성장 예상. 다만 EA는 다년 계약이라 변동성이 심해 가이던스에는 가시성 높은 딜만 반영.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를 더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는 기조 유지

AI 워크로드 동향

-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은 메모리, 상태 유지, 고품질 검색 기능이 필수적. MDB는 검색, 벡터 검색, 임베딩을 하나의 JSON 기반 플랫폼에 통합 제공하므로 여러 시스템을 덧붙이는 형태보다 스케일업에서 구조적 우위
- 대기업들의 AI 도입은 아직 내부 생산성 향상 수준에 머물러 있음. Fortune 500 기업들 사이에서 고객 대면용 대규모 에이전트 워크로드는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AI가 당장의 실적을 크게 견인하는 상태는 아님
- 그럼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뚜렷함. Vector Search 사용 고객이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하고, voyage 임베딩 모델 사용 고객도 인수 이후 두 배 증가.
- AI 네이티브 기업의 MDB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음. 1억 달러 run-rate 돌파한 Emergent Labs는 관계형 DB 대신 MDB의 아틀라스를 선택하여 대규모 AI 에이전트 구동. 11 labs 역시 대규모 AI 에이전트의 지식 기반 관리를 위해 아틀라스 도입.
- 초기 데이터베이스 선택 시 확장성 한계나 보안 문제를 겪은 AI 기업들이 스케일업이 안정적인 MDB로 전환 사례 증가

2026년 3월 4일 | Global Equity

프론트라인 (FRO.US)

실적발표를 통해 엿보는 탱커선 시황 전망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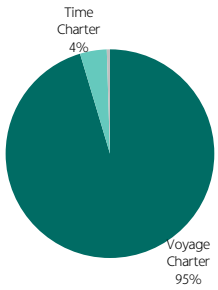
TP(컨센서스)	37.48 USD
CP(03.02)	39.62 USD

Key Data

국가	NORWAY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에너지
주요 영업	석유, 가스 & 소모 연료
홈페이지	www.frontline.bm
시가총액(십억USD)	8.8
시가총액(조원)	13.0
52주최고/최저()	39.89/12.4
주요주주 지분율(%)	
Hemen Holding Ltd	35.55
Folketrygdfondet	4.98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38.7	89.7	144.1
상대	40.1	82.4	126.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050	1,965	1,767	1,388
영업이익	782	599	1,293	771
순이익	496	379	873	615
EPS(USD)	1.8	1.8	4.6	2.9
EPS(YOY, %)	(32.3)	(0.6)	161.4	(36.9)
ROE(%)	21.5	15.6	46.9	22.3
PER(배)	6.4	12.8	8.6	13.6
PBR(배)	1.3	1.9	3.2	3.3
배당률(%)	12.5	8.1	11.2	7.1

자료: Bloomberg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4분기 VLCC Spot TCE $74,200까지 상승

프론트라인(FRO.US)의 4분기 매출액은 $6.2억(+47% (YoY)), 순이익은 242% 증가한 $2.3억(순이익률 36.5%)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은 VLCC 등 탱커 운임 상승이었는데, 4분기 평균 Spot TCE(일일수익지표)는 VLCC/수에즈막스/LR2 각각 전분기 대비 116%/53%/7% 상승했고, 1분기는 4분기 대비 44%/43%/86% 씩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업사이드는 클 전망이다. 현재 프론트라인은 VLCC 41척, 수에즈막스 21척, LR2 1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선령은 7.5년이다.

향후 2~3년간 시황 우려는 제한적

프론트라인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향후 2~3년간 VLCC의 매우 안정적인 시황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급이 적고 노후선대/비정규선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VLCC 시장에서는 중국 중심으로 탱커 발주가 늘어나고 있으나, 노후화된 선박은 운용 효율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부담스러울 수준은 아니다. 프론트라인은 2월 말 수준으로 TCE가 유지된다면 주당 $12.5의 현금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의 1/3에 달한다. 만약 운임이 30% 상승한다면 현금 창출력은 $16.8까지 상승할 수 있고, 30% 하락한다면 $8.2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이란/러시아)과 탱커선 시황 전망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다. VLCC의 2월 말 스팟 운임은 $17.7만까지 상승했는데, 당분간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운임에 작용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VLCC가 약 56척(글로벌 VLCC 중 9% 해당) 묶여있는 점도 운임 상승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업사이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다. 전쟁 종식 이후 러시아 원유가 정규 시장으로 편입되게 된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VLCC는 대부분 그림자 선대이나, 해당 운송량 중 상당 부분이 정규 시장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제재/저선령 VLCC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VLCC/탱커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야를 유지하고, 프론트라인에 대해서도 매수를 추천한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7,160	-8.1%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120	-6.9%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5,365	0.0%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1,660	66.6%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93	83.46	0.6%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7.04	25.0%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06.39	19.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62	19.4%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3/3	216,500	195,100	-9.88%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한국금융지주 (071050.KS)	3/3	258,500	240,500	-6.96%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카카오페이 (377300.KS)	3/3	66,900	62,400	-6.73%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디지털자산 유통·보관·결제 인프라로 사업 확장 가능성 부각 • 결제·송금 기반의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보험·투자 등 금융서비스 확장
삼양식품 (003230.KS)	3/3	1,221,000	1,172,000	-4.01%	• 밀양 2공장, 작년 12월부터 용기면 포함한 6개 라인 모두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 • 추가 생산 기지 건립 가능성 + 소스 및 신사업 기대
효성티앤씨 (298020.KS)	3/3	425,500	388,000	-8.81%	• 중국 경쟁사 파산에 따른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상향 동시에 진행될 것 • 중국 스판덱스 재고일수 2025년 초 50일 초에서 현재 29일로 대폭 축소
에코프로비엠 (247540.KQ)	3/3	221,500	199,500	-9.93%	• 4Q25 Review 매출액 4,992억원(YoY +7.0%), 영업이익 410억원(YoY 흑자전환) 기록 • 3월 초 CEO 주관 미래 기술 로드맵 발표 기대감
알지노믹스 (476830.KQ)	3/3	148,000	148,100	0.07%	• RNA 기반 유전자치료 플랫폼을 바탕으로 희귀질환·항암 분야 파이프라인을 확장 중 • 기존 DNA 교정 대비 정밀도·안전성 차별화를 통해 기술이전(L/O) 가능성 부각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2870.KQ)	3/3	74,000	67,700	-8.51%	• 빅뱅 20주년 컴백 발표 시 2026년 영업이익 전망 약 50% 상승 가능 • 2분기 이후로는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져가 연간 최소 1개 이상의 앨범 발매 예상
RF머트리얼즈 (327260.KQ)	3/3	42,800	51,500	20.33%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47%	+2.78%p	+37.84%	+4.7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3/3	106,300	96,900	-8.84%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 2026년 이후 대형 원전·SMR·가스터빈 매출 본격화 기대
삼성전기 (009150.KS)	3/3	448,500	409,000	-8.81%	•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POSCO홀딩스 (005490.KS)	3/3	413,000	374,500	-9.32%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아이에스동서 (010780.KS)	2/23	32,050	30,000	-6.40%	• 2026년 4월, 3.5조원 규모의 대구 자체사업 분양을 결정함에 따라 외형 레벨업 예상 •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53,500	2.81%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24,500	4.81%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KS)	2/9	100,000	105,200	5.20%	•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유일업체 •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기아 (000270.KS)	1/12	133,200	182,300	36.86%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95,100	62.72%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939,000	44.24%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97,600	72.73%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41,300	70.24%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9.39%	-3.68%p	+29.39%	-3.6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3.2	3.3	3.4	3.5	3.6	3.7
한국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수출 증가율 YoY (29%, 1월 33.9%)	▪ 미국 2월 ISM 제조업 지수 (52.4, 1월 52.6)	▪ 일본 1월 실업률 발표 (2.7%, 12월 2.6%)	▪ 중국 2월 제조업 PMI 발표 (E --, 1월 49.3) ▪ 미국 2월 ADP 취업자 변동 (E --, 1월 22K)	▪ 미국 2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	▪ 한국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1월 2%/0.4%) ▪ 미국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 변동 (E --, 1월 130K)	
3.8	3.9	3.10	3.11	3.12	3.13	3.14
	▪ 일본 1월 BOP 경상수지 (E --, 12월 ¥728.8b) ▪ 중국 2월 전년대비 CPI (E --, 1월 -1.4%)	▪ 한국 4분기 전기대비/전년동기대비 GDP 발표 (E --/--, 3분기-0.3%/1.50%)	▪ 미국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E --/--, 1월 2.4%/0.2%)	▪ 미국 3월 첫째 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발표 (E --, 2월 56.6)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